

서문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7:24-27 절의 숭고한 설교를 통하여 그의 제자들에게 두 유형의 듣는사람들의 정반대로 대조된 결과를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진실되게 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위에 지은사람 같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집에 부딪치더라도, 그 집은 반석위에 지어진고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의 집을 모래위에 짓습니다. 그런 까닭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때에, 그의 집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것을 그의 삶에 실천하지않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집간의 다른 점이 실제로는 집의 구조나 토대가 아닌 그 집을 짓는 지면에 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나 방식에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때에 무계획적이었고, 깊이가 없었으며, 부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힘을 알고있었기 때문에 그에대하여 존경과 두려움과 떨림과,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그가하는 모든일에 축복과 번성함이 있게 할 것입니다.(여호수아 1:6-8; 열왕기상 2:3,4; 시편 1:1-3).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작업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힘든 일의 끝이 그의 땀과 고생과 눈물이 흘렀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의 시간은 후에 그의 판단과 믿음이 맞았음을 증명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짐과 목표의식, 성실함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재해가 발생했을때에 처참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하는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극도로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삶의 운명과 질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것에 매우 달려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개 교회에 보낸 연설문들에는 이러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7, 11a, 17a, 29, 3:6, 13, 22).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것에 따른 모든 이득과 축복을 효과적으로 얻어낼수있게 할 것 입니다.

(1) 영적인 능력을 활용하여 영적 진리를 알아내자

요즘 시대에 사람들은 영적진리에 관하여 배우기는 하지만 그 실체를 정말로 알고있지는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7). 영적인 것들은 반드시 영적인것으로 판별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14) 첫째로,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더,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진것으로부터 영적으로 활발해졌는가에 대해서 검사해보고 또 입증하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2:1). 한 사람이 성령과 복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천국과 관련된 어떤것들도 인지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교회의 리더이자 성서를 교육시키는 교수였으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 둘째로, 성서에 관한 깊은 사실들을 이해할때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 진리가 우리의 정신과 지적 능력만으로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신성한 빛이 우리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진리를 이해할수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우리가 성서를 깨닫고 이해할수있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이유입니다 (요한일서 2:20,27). 그런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때에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이나 육체적인 지혜로부터 나오는 편견들로부터 방해받거나 저지당해서는 안됩니다 (이사야 66:1,2)

현대사회의 진보주의적 트렌드에 크나큰 영향을 끼친 기독교의 오류와 이단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전혀 받지않고 성서를 자신들 멋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사람들의 부작용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부터 멀어져 갈 것입니다.

(2) 겸손과 학습하기에 알맞은 태도를 취하자

우리는 주기적으로 우리가 항상 온화하고 배울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명상함에 따른 복을 계속 받게 될것이라고 당연히 여겨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을가지고 공부할 때에도, 우리는 반드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조용히 주를 기다리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겪었던 경험이나 진실에 관한 우리의 자각력이 우리가 더 깊고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하게 진리를 이해하기를 좇음에 대한 장애물이 되서는 안될 것입니다(빌립보서 3:12-14).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에대한 접근이 우리의 주제넘고 건방진 성격 때문에 주님의 승인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19:14, 로마서 12:1) 이것을 확인하고 고칠수있는 방법중 하나로는 꾸준히 정직하게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시편 139:23,24; 고린도후서 13:5).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지혜와 힘을 찾는다면, 반드시 겸손하고 깊이 뉘우치는 마음을 가져야합니다 (이사야 57:15, 65:2,5; 요한복음 6:44; 고린도후서 12:9,10). 우리 주님은 이러한 태도의 본보기 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온화함과 보잘것없음을 가르치시기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기쁨과 힘과 위로를 알게되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찾게되는 것입니다. 잠언은 배울자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어리고 지식없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배운 사람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구절과 함께 시작합니다 (잠언 1:4-6). 미묘한 사실상의 위험은 우리가 성서를 익히고 익숙해졌을때에 찾아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로부터 미래의 축복을 빼앗고 우리의 영적인 진척과 발전을 지연시키며 결국에는 약화시킬 것입니다. 유명한 격언인 “익숙함이 경멸을 낳는다”가 이 사례에 적용됩니다. 이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불안감이 오지 않도록 바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겸손한 기대를 표현하는 오직 한가지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보기전에 기도하여야 하고, 듣거나 보는 와중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여야합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에 관한 능력을 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저자처럼 우리의 가장 중심의 부르짖음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17,18)

(3) 우리의 종교적인 습관에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자

우리의 태도가 오로지 그리고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도록 도우시는데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라고 신성해지는 중에는 수동적으로 남아있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12b) 라는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적으로 듣고 읽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합니다. 이 습관은 우리에게 절제함과 근면함을 요구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후에 우리의 기독교적 성질의 크나큰 성장과 도움을 주는 경건한 마음을 얻게 해 줄 것입니다. 예를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침이나 저녁이나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성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과 예를 보여줍니다. (시편 63:1; 마태복음 1:35) 우리가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경건히하고 안정감있게 하기위해서 예배하기 전이나 성경공부 이전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읽고 들은 것을 기억하고 명상하는데에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돕기위해서 간결한 메모를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마음에 가장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일것입니다. 묵상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에 대입하려고 노력하는 생각과 기도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냄과 동시에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을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찾아야합니다. (신명기 11:18-19)

(4)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적용하기

만약 우리가 성서적 지식언기를 그만둔다면, 우리는 절대로 축복받지 못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자 하는 목적은 다른 무엇도 아닌 온전하게 그것을 믿고 우리삶에 적용하는 것 입니다. 예수님의 사도중 한사람인 야고보는 그의 편지에서 우리를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22)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25)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것의 참되고 완전한 기쁨은 오직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것을 적용했을때에 옵니다. 이것은 서기였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자신이 행하기에 앞서 마음을 준비하여 주님의 법을 맨 처음으로 찾고 공부한 것과 같습니다. (에스라 7:10)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16,17)

결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경건한 마음을 갖는데 부주의한다면, 그것은 이후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것 입니다. 참으로, 그 결과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못한 사람의 비극적인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산에서의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27b)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건하고 떨리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참된 진리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 시켜 줄 것입니다. 어떤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영접함이 반석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의 묘사됨과 같아야함을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



헤외로 출판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리낌 없이 전하기 위하여

© 2011 Elijah Thomas Chacko
저작권

이 책자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변하거나, 삭제되거나, 왜곡되는 안됩니다. 복사본을 원하신다면 westminster.tradition@gmail.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김성직
Translated by Seongjig Kim

첫 출판: 1982년;
두번째 출판: 2011년 11월 29일

하나님의 말씀을 맞이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것에 대한 크리스찬들의 태도와 접근방법

엘리야 토마스 차코
Elijah Thomas Chacko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24-27